

2026 년 11 월 18 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AI 투자 우려에도 한국 성장률 상향

IMF 는 17 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0.6%p 상향 조정했다. 지난 7 월 전망치인 2.6%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1.3%p 높아진 수치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호조와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3%로 높였으며, AI 관련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AI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하며 물가 안정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IMF 전망을 고려하면 이달 발표될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물경기는 우려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장 전망이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1 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심화될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부담으로 매파적 발언의 강도가 다소 약해질 여지는 있다. 다만 경기 개선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내년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통화긴축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 전망 상향과 추가 금리 인상 기대는 국내 시장금리의 하락을 제한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와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화 공급 확대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여타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첨단산업의 높은 성장세에도 전통 제조업과 내수 부문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경우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국내 경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동력이 유지되겠으나, 통화긴축 부담과 산업 간 성장 격차 등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수시로 제기될 수 있다.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